

1993년 여름, 동료 건축가들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센호프 시들룽을 기행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곳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였다”라고 선언한 독일공작연맹 건축전람회(1927, 미이스가 주도하고 르 꼬르뷔제 등 당시 젊은 건축가들이 참여한 건축전람회)는 말 그대로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20세기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들의 창조적 제안은 이전 시대의 ‘양식樣式style’을 벗어나 ‘공간’에 주목한 것이었고, 이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공간은 20세기 건축을 활짝 열었다. 르 꼬르뷔제가 창안한 도미노이론에 뿌리를 둔 그들의 건축은 구조 시스템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공간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 공간을 사용자들이 점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용變容되는 실존적 ‘삶을 담는 기계’가 되었다.

“CASE(건축, 랜드스케이프 건축 그리고 도시설계에 관한 사례연구 시리즈)의 한 권인 이 책은 도시론, 환경시스템, 프로그래밍, 형태분석론, 건축역사학 등 건축과 도시에 관한 전문분야 학문들의 시각으로 이 특별한 작품, 르 꼬르뷔제의 마지막 프로젝트, Venice Hospital, Project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를 오늘날 건축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판 건축Mat architecture의

시원始原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이 팀-10의 일원이었던 영국건축가 알리슨 스미존 Alison Smithson 등에 의해 1960년대에 제기되기 시작한 판건축 유형의 주된 원칙들 그리고 오늘날 판건축의 부활에 중심적으로 다시 자리잡고 있는 방법론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도전되고 있었는가를 탐색하여, 이 규범적 건축이 반세기를 지난 지금에 하나의 건축유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판mats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장場 fields, 바닥grounds, 카펫, 매트리스 등으로 칭한다. 이는 오브제적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대한 영역을 덮는 구축물 등에서 오늘날 건축의 이미지를 적확하게 드러내는, 도시와 랜드스케이프 및 건축을 아우르는 어떤 범주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은 토지이용에서 효용성, 크기와 모양에서의 불확정성, 용도에 대한 가변성, 프로그램의 혼합 등을 지향하여, 건축이 도시와 랜드스케이프에로의 확장되는 길을 열면서, 이분된 상부구조(건축)와 하부구조(컨텍스트) 사이로 상호 침식하는 건축의 새로운 유형 또는 방법론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 실린 스탠 알렌Stan Allen의 글〈판 도시론: 두께를 가진 2차원 Mat Urbanism: The Thick 2-D〉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듯이, 이들은 반-형상적이며, 반-재현적이며, 반-기념비적이다. 특정한 기능을 조작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이벤트가 최대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방된 장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따라서 기능과 이벤트는 느슨한 틀의 공간에 일정 기간 배열되며, 그래서 바닥판은 상대적으로 중성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판건축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오브제와 같은 고전주의적 건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장場, fields과 같은 분위기를

# 오늘 다시 해석하는 모더니즘 거장들의 마지막 작품

민현식\_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조직하는 새로운 감성이 출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비오르 제적인 회화로부터 연속적인 음악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언어학에서 미니멀리스트의 조각으로, 모더니티의 규범적 논리에서 떠나, 맥락으로 엮어진 장에서 그것들 상호 간에 구성되는 관계와 위치가 오히려 중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들의 연속체와 사물들 사이의 사이공간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집중한다.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던 음악에서의 침묵, 회화에서의 비움, 건축에서의 빈 공간 등의 가치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나, 두 번째 책에서의 논의들은 미이스의 말년의 작품 토론토-자치령 센터 Toronto-Dominion Centre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 열린 심포지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비평적 평가들이다. 즉 실제, 기술, 이미지문화, 철학, 예술 그리고 교육 등 현재적 건축적 사고들에 의해 다양한 방면의 반향들을 끌어내고 있다. 편집자 데트레프 메르틴스 Detlef Mertins의 서론인 '새 미이스 New Mies'가 시사하는 바, 오늘날의 관점으로 점검해 본 '미이스'의 새롭게 해석한 글들의 모음집이다.

그 책을 열면, TDC의 정면을 1988년 9월 26일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대별로 찍은 일련의 사진을 만난다. 하루를 통해 이 건축물의 표피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포착한 것들이다. 이 일련의 사진들은 이 작품이 1950년대와 60년대의 미이스의 프리즘 건축들과 함께, 주변의 조건에 따라 완벽한 불투명함에서 완벽한 투명함까지 이르는, 춤추는 빛과 날씨 아래서 보는 이의 감성과 지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안정성과 불안정성, 자율성과 관계성의 양면성을 함께 가지는 자율적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 미이스 작품의 현상학적 가치를 역설하는 이 글들에서 그것의 내포된 공간과 공간을 싸고 있는 표피의 변화를 엿어서,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하는 고전적 이상주의의 모더니즘과 주변의 상황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느낌을 그때그때 창출하는 현상학은 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오월동주吳越同舟와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미이스는 이미 오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예지하고 있었음을 읽게 된다.

그 특히 나의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로자린드 크라우스의 글 〈격자/구름 그리고 상세 The Grid/the Cloud and the Detail〉와 이그나시 드 솔라-모랄레스 루비오의 글 〈미이스 반 데어 로에와 미니멀리즘 Mies van der Rohe and Minimalism〉이다. 이 두 논객은 미이스와 미니멀리즘의 해석에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즐겁다. 크라우스는 미이스를 독해함에 있어, 최근의 무모한 후기구조주의자들과 반고전적 해석에 일정 거리를 두고서, 모더니스트 미이스와 극추상주의 화가 아그네스 마르틴 Agnes Martin의 회화들과 그들 간의 개념적 격자 grid와 인식적 효과를 비교하면서, 모더니스트 미이스로 다시 돌아와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미이스의 자율성 아이디어를 다시 평가함에 도전하고 있다.

그 언제이던가,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New National Gallery, Berlin 앞에 서서 미이스를 만났을 때, 투명한 햇빛, 빠르게 흐르는 검은 구름 그리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동시에 몰아치던 변덕스러운 날씨에 근사하게 조응하는 표피와 가변성이 극대화된 내부공간이 만나 '유니버설 스페이스 Universal Space'로 합일되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 이 두 책을 읽으며,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거칠고 졸속하게 단정적 비평을 일삼았던 내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무한히 작아지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아! 역시'라는 찬탄을 금하기 어려운 그분들의 선형적 예지에 감탄과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

나, 이 글을 쓴 민현식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간연구소(김수근)와 원도시건축연구소(윤승중+변용)에서 건축을 배웠으며 런던의 AA School of Architecture에서 수학하였다. 1992년 민현식건축연구소를 개설, 독자적 건축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은식, 박용수 등과 함께 건축사사무소 기오현(寄傲軒)을 이끌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마당 깊은 집(단독/연립주택, 분당), 일련의 신도리코 프로젝트들,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 등이 있다. '김수근문화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로서 건축교육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